



기획재정부

## 보 도 자 료

다시, 대한민국!  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6. 2. (목) 14:30	배포 일시	2022. 6. 2. (목) 13:30
담당 부서	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 고재신 (044-215-5510)
		담당자	사무관 송윤주 (044-215-5511)

###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, 「공공기관 혁신 전문가 간담회」 개최

-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.2(목) 10:00,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#### < 공공기관 혁신 전문가 간담회 개요 >

- (일시·장소) 6.2(목) 10:00, 정부서울청사
- (참석자) (기재부) 제2차관, 재정관리관, 공공정책국장  
(민간) 서울대 김준기 교수, 공공기관연구센터 라영재 소장,  
KDI 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, 성균관대 신완선 교수,  
이화여대 원숙연 교수, 한경대 이원희 교수

-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「공공기관 혁신」의 추진 방향과 전략 등에 대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간담회에서 최 차관은, 최근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생산성 저하, 방만 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바,
-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,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체질개선과 혁신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.

- 최 차관은, 새 정부는 ‘공공기관 혁신’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공공기관의 생산성·재무건전성 향상, 운영상 자율·책임 강화 등을 위해
  - ❶자발적 혁신 및 효율화, ❷재무건전성 확보, ❸자율·책임역량 강화, ❹민간혁신·성장 지원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.
-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생산성 하락 문제를 우려하고, 공공기관 혁신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면서,
  - 그간 공공기관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능·업무가 유사·중복되는 기관들이 증가하였는 바, 공공기관 기능·업무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핵심역량 위주로 재조정하는 것이 우선과제임을 강조하고,
  - 특히,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국민부담으로 이어지므로 공공기관 재무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기관별 상황을 반영한 부채관리방안 마련 등 재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.
  - 아울러, 공공기관의 전문성·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, 자율·책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유형별 맞춤형 관리체계 및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개편 필요성도 강조하였다.
  - 한편, 공공기관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과 역량을 미래가치에 맞게 전환하고, 공공기관이 가진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민간의 혁신·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.
  -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능·인력·재무 등 기관운영 전반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며, 기관의 자발적 혁신 유인 확대 등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이 상시적·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
- 최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금일 간담회에서의 전문가 제언 등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,
  - ‘일 잘하는 공공기관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혁신과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.